



정정업은 민중 미술과 여성 미술, 지역주의와 보편주의, 활동가와 예술가라는 정체성의 좌표 속에서 비선형적인 점을 찍으며 작업해 왔다. 정정업의 작업은 한국 현대사와 조응하며 이루어졌다. 일찍부터 추상, 모노크롬, 국전 중심의 아카데미한 구상 회화가 주를 이루며 남성 작가 일색이었던 당대 한국 미술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1985년 ‘두렁’을 시작으로 소그룹 활동을 통해 민중 미술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sup>1</sup> 민중 미술 중인 ‘두렁’의 일원으로서 그들과 작업실을 공유하며 걸개그림, 목판화, 유인물 등을 제작하는 한편, 인천의 공장에 위장 취업하여 미술의 사회적 쓸모를 모색한다.

민중과 미술 사이

작가는 1987년에서 1992년 사이에 소그룹 활동으로 공동 창작을 하는 한편, 〈면장갑〉, 여성 노동자를 주제로 한 〈잔업 없는 날〉, 〈올려보자〉를 비롯해 박노해의 시에 그림을 더한 〈이불을 꿰매며〉 등 총 17점의 목판화를 제작하였다. 민주화의 거대 담론을 선언적으로 표현하는 남성 작가들과 달리 정정업은 산업화로 인해 도시로 몰려든 나이 어린 여성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담담하고 섬세하게 보여 준다. 일상적인 소재로 작업한 목판화는 1980년대 여성 미술가가 당면한 삶의 현실 또한 소소히 기록하고 있어 미술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목판화는 정정업이 사회와 관계 맺는 활동가로서 지닌 면모를 보여 주는 동시에, 이후 작가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여성주의, 생태주의 관점의 단초를 보여 준다.

1980년대 민주화의 시대적 요구 아래 민중 미술 운동을 하면서 제작한 목판화는 당시에는 미온적인 것으로 비춰지기도 했으나, 현재는 민중 미술 내에서 여성주의적 시각이 반영된 작업으로 여겨진다. 거대한 담론이나 선언을 담기보다 작가의 일상적 체험을 녹여 낸 목판화는 보는 이에게 진정성과 노동의 연대가 갖는 의미를 전달한다. 1992년경 노동 운동 현장에 변화가 찾아와 목판화는 인쇄 매체에 자리를 내주고 정정업은 본격적으로 개인 작업인 페인팅을 시작한다. 노동 현장에서 미술의 무용함을 느낀 작가는 민주화의 열망 뒤에 가려진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사회 제도의 억압도 인식한다.<sup>2</sup> 여성이자 작가로서 부딪히는 현실에 대한 질문은 이후 작품 세계를 추동하여 개인 작업과 소그룹 활동을 병행하게 한다.



면장갑, 1987, 종이에 목판, 34×27cm



올려보자, 1987, 종이에 목판, 32.5×23.5cm



봄날에, 1988, 종이에 목판, 36×26.5cm



이불을 꿰매며, 1988, 종이에 목판, 55×40cm

총괄기획: 강성은  
 연구원: 김윤정  
 아카비스트: 박지혜  
 디자인: 인현진  
 발행처: 미디어버스

이 책은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 2022-2023  
 〈작가 조사-연구-비평〉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 소그룹 활동과 개인 작업 사이

정정엽의 작품 활동은 크게 소그룹 활동을 통한 민중 미술, 여성주의 미술 운동과 개인적인 회화 작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정엽의 개인 작업과 소그룹 활동은 그의 작품 속 팔과 콩처럼 자유롭게 만나고 흩어진다. 그는 1980년대 민중 미술 내에서 지역적으로 자생한 여성주의 미술 운동과 1990년대 이후 신자본주의와 함께 유입된 페미니즘 미술 사이를 활동가이자 예술가로서 잇고 있다. 정정엽은 1985년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동기들과 여성 작가그룹 ‘터’를 만들었고 김인순, 김진숙, 윤석남 등 ‘시월포임’ 작가들과 함께 민족미술협의회 내 ‘여성미술연구회’를 만들어 1994년 해산할 때까지 《여성과 현실》 등 여성주의 전시를 기획하고 참여한다.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는 ‘두렁’, 인천에서 벌인 ‘일손나눔’ 활동, ‘갯꽃’에서의 민중 미술과 ‘터’, ‘여성미술연구회’ 등에서의 여성주의 미술 운동, 1990년대 후반에는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그룹 ‘입김’ 그리고 2016년 이후에는 반핵 미술 운동 ‘핵몽’ 등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한 자리에서 의자의 방향을 고쳐 앉으며 두 종류의 작업을 병행해 오고 있다.<sup>3</sup>

소그룹 활동으로 이어지던 작가의 여성주의 미술 운동은 2000년 〈아방궁 종묘점거 프로젝트〉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정점을 찍는다. 종묘라는 한국 가부장제의 핵을 점거함으로써 견고한 제도에 균열을 가하려던 시도는 전주이씨 종친회의 거센 반발로 인해 작품 철거에 뒤이은 수년간의 법정 공방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사건은 신문의 사회면과 문화면을 모두 장식하며 다양한 여성 운동가들이 연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호주제는 가부장제의 핵심이었으며 일종의 ‘종묘’였다. 양성평등과 가정 내 민주화에 대한 여성들의 열망은 〈아방궁 종묘점거 프로젝트〉와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었다고 볼 수 있다.<sup>4</sup>



입김, 아방궁종묘점거프로젝트



몸살, 1994, 앞치마 천 위에 아크릴릭, 오일, 약봉투, 160×104cm. 《제8회 여성과 현실전》(21세기 화랑, 1994) 출품작

## 여성과 여성 사이

정정엽은 작품 활동 초기부터 꾸준히 여성 인물을 그려 왔다. 1990년대 이후 그린 여성은 주로 가정 내에서 노동하는 여성이었다.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인 〈집사람 I〉(1991)은 취업광고판 아래에서 둘째 아이를 업은 채 첫째 아이의 손을 잡고 구인구직란을 보고 있는 한 여성 노동자를 그린 것이다. 이처럼 가부장제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노동을 하는 여성의 모습은 손마다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 피안동 여성들을 그린 〈식사 준비〉(1995)로 이어지고 가정 내 여성의 내면을 탐구한 〈집사람〉(2000~2008)의 드로잉 설치 작업으로 이어진다. 1980년대 목판화 속에 나타난 여성이 노동 현장에서 평등을 위해 투쟁하는 모습이었던 반면, 1990년대 이후 작품 속 여성은 일상의 재생산/돌봄 노동과 임금 노동 사이에서 분투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 시기 작가는 ‘터’, ‘갯꽃’, ‘여성미술연구회’ 등 소그룹 운동을 병행하며 당시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단절되어 이중의 노동을 하고 있는 가정 내 여성이 처한 현실을 그렸다. 향후 가부장제 내에서 집사람이던 여성은 시간이 흘러 나이 들어감에 따라 제도의 억압에서 보다 자유로운 할머니가 된다. 〈할머니 특공대〉(2021)에서 잔뼈 굵은 노동 속에 나이든 여성은 더 이상 공공연한 성적 대상이나 가정 내 돌봄의 주체가 아니다. 몸뚱 바지를 입은 할머니는 가부장제 사회의 억압에서 자유롭고 흥분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2000년대 이후 그리고 있는 여성 인물은 가정 내 고립에서 벗어나 사회 속에서 연대하고 있다. 〈최초의 만찬〉(2019)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해 12명의 여성 인물을 그린 작품이다. 사회적 유명세, 작가와의 친분 관계, 생사와 무관한 인물들이 공존하여 작품 내 인물 간의 위계를 해체하고 있다.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기존 작품들과 달리 이 작품은 백인/엘리트/유명 여성이 아닌 오직 ‘여성’이라는 공통점만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여성을 보여 준다. 작가는 이 여성들을 조건 없는 환대의 장소로 초대한다. 〈얼굴 풍경〉(2009~2021)은 “일면식은 있으나 친분과는 상관없는 동시대의 우정이라 할 수 있는 친구”들의 초상이다. 이들은 스승이 없이, 없는 길을 만들어간 여성이다. 〈최초의 만찬〉과 〈얼굴 풍경〉에 그려진 동시대 여성 인물은 서로 연대함으로써 고립되거나 미치거나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 정정엽에게 여성 인물을 그리는 것은 그 자체로 연대 행위이다.



집사람, 1991, 캔버스에 유채, 116.5×9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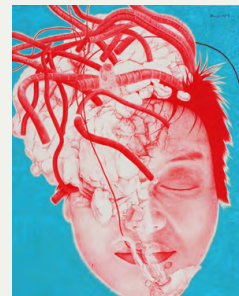
식사준비, 1995, 캔버스에 유채, 162×372cm



할머니 특공대 2, 2021, 캔버스에 아크릴릭, 유채, 162×260cm



최초의 만찬 2, 2019, 캔버스에 아크릴릭, 유채, 50×100cm



고군분투, 2009, 캔버스에 아크릴릭, 유채, 162×130cm



## 인간과 비인간 사이



어머니의 봄, 1991, 캔버스에 유채, 73×91cm



봄나물, 1995, 캔버스에 유채, 80×233cm



마을-냉이, 2012, 캔버스에 유채, 162×130cm



봄 1, 2015, 캔버스에 아크릴릭, 유채, 162×130cm



흐르는 대지, 1997, 캔버스에 유채, 180×140cm



만찬, 2011, 캔버스에 유채, 112×112cm

정정업은 1990년대 이후 개인적인 회화 작품 속에서 멸종 동물, 나물, 벌레, 감자 싹 등 인간이 아닌 다양한 생명을 소재로 작업한다. 이 작품들은 일종의 자연사박물관을 연상케 한다. 인류가 만든 인공의 것들이 위엄을 과시하는 미술사박물관과 달리 자연사박물관에서 인간은 한 점 먼지보다 작다.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의 위계를 없애는 생태주의적 관점을 엿볼 수 있다. 1991년에 그린 중요 작품 중 하나인 〈어머니의 봄〉(1991)에서는 여성으로서 어머니의 노동과 겨울을 지나 봄에 움터 올라온 봄나물의 생명력을 병치시킨다. 〈봄나물〉(1995)과 같이 초기에 구상적인 경향을 띠었던 나물이라는 소재는, 작가가 용인에 정착한 이후 〈마을-냉이〉(2012) 등에서처럼 나물 자체에 집중하여 표현된다. 이처럼 정정업은 살림의 시기를 놓쳐 싹이 나고 독이 오른 감자, 식물을 채취하고 다듬고 씻어서 식탁에 올리기까지 투입된 여성의 노동을 암시하는 나물을 그려 왔다. 또한 나방같이 평소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벌레들이나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인 멸종 위기 동물들처럼 소외된 생명을 그리고 있다.

생태주의적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곡식 시리즈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자루 안에 콩이나 팥 같은 곡식들이 가득 담긴 것을 묘사하던 초기의 페인팅은 점차 한 알 한 알 서로 다른 곡식의 낱알에 주목하는 경향으로 변한다. 매일 쌓여 가는 살림의 무게를 인식하던 작가는 돌연 살림살이 속에서 팔이 흘러나오는 상상을 하게 되고 이후 팔은 살림의 장소나 여성의 신체에서 그로테스크하게 비어져 나온다. 초기에 구상적이던 곡식 작업은 점차 추상적으로 변하며 폭죽이 터지듯 화려한 색채의 다채로운 곡식들이 화폭을 가득 채우거나 자유로이 굴러다닌다. 작가가 팔 한 알 한 알을 수행적으로 쌓아 올렸다는 점에서 소재와 제작 방식이 여성의 반복적인 노동과 닮았다. 곡식 시리즈는 소재뿐 아니라 제작 방식에서도 ‘여성’이라는 조건을 의식하며 제작되어 여성주의와 생태주의적 관점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 활동가와 예술가 사이

민중 미술 이후에도 활동가로서 정정업의 예술 실천은 계속된다. 사회가 변하자 사회와 관계 맺는 예술가의 작업 방식도 변하게 된 것이다. 정정업은 1980년대 중반 민중 미술 활동가로서 현장에서 예술을 실천하며 길 개그림과 목판화 등 공동 창작 작업을 시작한다. 이후 오랜 기간 소그룹 미술 운동을 하며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다가 결혼으로 인해 전업 작가와 기혼 여성의 일상이 부딪히자 더욱 현실에 밀착한 활동들을 이어 간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전반까지의 ‘티’, ‘여성미술연구회’ 등 여성주의 미술 운동과 1990년대 말에서 2006년까지 이어졌던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그룹 ‘입김’의 작업들은 정정업의 여성 미술 활동가로서 다양한 면모를 보여 준다. ‘입김’의 〈아방궁 종묘점거 프로젝트〉는 2000년대 초반 신문의 문화면과 사회면을 달구며 한국 사회의 단단한 가부장제에 균열을 낸다. 〈아방궁 종묘점거 프로젝트〉의 세부 계획 중 하나인 ‘페미니즘 미술 큰 마당’은 한복 치마로 종묘 공원 전체를 둘러싸는 것이었다. ‘입김’은 미술관 안이 아니라 밖, 종묘라는 가부장적인 유교의 상징적 공간에서 미술을 시각적 체험을 넘어서는 총체적 체험으로 전환해 관객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려 했다. 2006년 이후 ‘입김’의 공동 창작 활동은 멈추었지만 정정업은 1인 시위라는 형식으로 퍼포먼스를 이어가 〈일본군 위안부 1,000차 수요집회시 퍼포먼스〉, 〈남미 액션 프로젝트〉 등의 작업을 하였다. 2016년부터는 ‘핵몽’이라는 단체 활동을 통해 탈핵을 지지하는 예술가들과 연대하고 있다.



2005.7.9 입김 퍼포먼스: 사라진 여자들-수원 나혜석 거리 1



2008 남미 액션 프로젝트: 아르헨티나 페르가미노 퍼포먼스 3



일본군 위안부 1,000차 수요집회시 1인 퍼포먼스, 2011



2022 차목포연안환경미술행동 2

정정엽의 작품은 미시사와 거대 담론, 한국이라는 지역성과 여성이라는 보편성이 만나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매체나 기법, 시기는 다르지만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주제는 여성의 노동과 소외된 생명이다. 정정엽은 노동하는 여성의 눈으로 생명을 보고 그것에 내재된 힘을 예술가이자 활동가로서 표현한다. 초기 목판화가 1980년대 민중 미술 안에서 한 여성 작가의 눈에 비친 삶과 사회를 반영했다면, <나의 작업실 변천사: 1985~2017>는 작품 제작 공간의 변천에 따른 한 여성 작가의 생애사를 보여 주는 한편, 부동산 폭등, 젠트리피케이션, 개발 등 한국 현대 사회의 변화를 가늠케 한다. 작가 정정엽은 단단한 한국 사회와 미술사의 거대 담론에 구멍을 뚫어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현재적 관점에서 정정엽의 작품은 계속 다시 읽히고 있다.



나의 작업실 변천사 표지, 종이에 펜, 1985-2017  
59×42cm

1. 양정에 큐레이터와의 대담에서 정정엽 작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촛불을 들고 ‘현실과 발언’ 전시를 보았다고 했다. 여타의 인터뷰들에서도 고등학생 때 전시 팸플릿 1,000여 장을 모으면서 여성 작가가 극소수인 것에 어느새 ‘이상하다’는 질문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양정에, 「정정엽, 살아온 내력이 작품 되기의 당연함」, 『민중 미술, 역사를 듣는다 2』, 김종길 외 지음(현실문화A, 2021), pp. 503-566.
2. 1986년 12월 민미협 내 여성 미술 분과가 생겼다. 김인순 작가는 “민미협은 여성 미술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민주화나 민족의 통일 문제에 몰두해 있었다”고 회상한다. 『월간미술 9월 좌담—80년대 여성 미술 운동을 말한다』, 『월간미술』(1989년 9월), p. 72.
3. 연구자 김현주는 한국 현대 미술사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에 존재하는 인식론적 차이를 거대한 단절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한다. “여러 시대를 거치며 작업의 연속성과 변화를 보여 주는 예술가 주체들의 구체적인 활동과 그들의 다성적 목소리들, 내부적 타자들의 존재를 지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관점은 한국의 여성주의 미술의 역사 서술에도 반영되는데, 1980년대에는 민중 미술 계열의 여성주의 미술, 90년대는 포스트모던 여성주의 미술로 단순화하는 경향이 그것이다. 그럴 경우 윤석남, 박영숙, 정정엽 등 1980년대 형성된 여성주의 인식과 활동을 주요 발판으로 삼아 현재까지 꾸준히 변모하며 여성주의 미술을 추구해 온 작가들의 작업을 설명하는 것이 난감해진다. 그러므로 두 시대 사이에 단절이 아니라 인식론적 전환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런 변화에 대한 예술가 주체들의 개별적인 반응은 매우 다르게 나타남에 주목해야 한다.” 김현주,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그룹 ‘임김’의 개입으로서 연대와 예술실천』, 『미술사논단』 42호(서울: 한국미술연구소, 2016), pp. 161-162.
4. 호주제는 일본 식민지 정부 하에서 도입되어 가정 구성원을 관리하던 제도로, 북한과 일본에서는 이미 1950년대에 폐지되었다. 여성 운동가들은 호주제를 ‘전통의 날조’로 명명하며 수년간 폐지 운동을 벌였다. 정현백, 『연대하는 페미니즘』(도서출판동녘, 2021), pp. 59-60, pp. 83-87.



나의 묘한 벌레들, 광목천 위에 아크릴릭, 2023,  
300×156cm

작가 약력

정정엽 1962년 강진 출생

학력

1985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주요 개인전

2023 모욕을 당한 자이며 위대한, 갤러리 밌, 서울

2022 물구나무 팔, 부산문화회관, 대구

2021 걷는 달,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 조용한 소란, 서울식물원, 서울

2019 제 4회 고암미술상 수상작가전: 최초의 만찬,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이응노의 집, 홍성

2016 벌레, 갤러리 스케이프, 서울

2006 지워지다, 아르코미술관, 서울

2000 붓물, 인사미술공간, 서울

1998 정정엽 개인전, 금호미술관, 서울

1995 생명을 아우르는 살림, 이십일 세기 화랑, 서울

주요기획전

2023 아르코미술관 50주년전—어디로 주름이 지나가는가, 아르코미술관, 서울

2022 누구의 이야기,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2021 약속,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20 핵몽4—야만의 꿈, 예술지구p, 부산

2019 세상에 눈뜨다: 아시아 미술과 사회 1960s~1990s,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도쿄국립근대미술관, 도쿄 / 싱가포르국립미술관

2018 부드러운 권력,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2009 Off the Beaten Path: Violence, Women and Art, 슈테네르센 미술관,  
오슬로 / 샌디에고 대학 박물관, 샌디에고 외 2014년까지

2002 미국, 멕시코, 스페인, 캐나다, 남아프리카 등 10회의 순회전 개최  
광주비엔날레 프로젝트 3, 5.18 자유공원, 광주

작품소장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아르코 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경기도 미술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 등

수상

2022 제34회 이중섭미술상, 조선일보

2020 제14회 양성평등문화인상, (사)여성문화 네트워크

2018 제4회 고암미술상,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